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16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12월 1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문재인정부가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숨걸고 출근해야하는 나라!



### 김용균노동자 2주기, 여전히 죽는 노동자

11월 18일 오후 3시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성형기에 말려들어 쓰러졌다. 그날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정기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17일만에 사망했다.

12월 9일 새벽 5시쯤,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사망한 노동자는 출근한지 딱 한달된 20대 청년이었다.

2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모두 목소리를 모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아직도 노동현장은 그대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174석을 가진 거대여당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법들은 강행처리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철저히 외면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다. 노동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매일 출근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막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않게 일할 수 있게 하자.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